

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 성 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우리는 현재 2만불 소득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과거의 굴뚝형
2차 산업에서 첨단형 제조업과
3차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증대하고 이를 즐기
위한 관광, 정보통신, 영상 등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1. 서언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항과 어촌지역에 5개년에 걸쳐 약 4,7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관광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별, 모델별 후보지를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금 WTO 등에서 요구하는 무역왜곡 보조금 등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어촌어항 정책 개발 측면에서도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어족자원의 고갈로 생산 위주의 소득 창출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촌 소득원의 창출이 요망되는 시점으로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어항관광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기존에는 어업인 위주의 어촌어항 정책이 견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바다가 국민 공유의 성질이 강해짐에 따라 어항도 어업인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어촌어항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어촌 관광자원

어촌의 관광자원도 일반적인 관광자원의 분류방법에 따라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문자원은 사회문화자원과 산업자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자연자원으로 해수욕장, 갯벌, 철새도래지 및 천연기념물,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바다길 갈라짐 등이 있다. 인문자원 중 사회문화자원으로는 자료전시관, 지역축제(풍어제, 영등제 등), 음식문화, 전래 어구어법, 어촌의 문화사적 및 유적지와 어촌촌락 등이 있으며 산업자원으로는 수산업에 많이 쓰이는 어항, 양식장, 유어선(낚시배), 遊船(놀이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어촌관련 관광자원의 분류 및 현황

분류	자원명	자원내용	비고	
자연 자원	해수욕장	서해 110, 남해 99, 동해 147, 총 356개소		
	철새도래지	국제적 중요철새 3종 이상 연안 도래지 20개소		
	갯벌	2,815㎢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해양스포츠 장소	요트장 해안 7개소 등 종목별 다수 보유		
	해안경관지	해상(안) 국립공원 2648.54㎢ 일출/일몰지, 도서(3,200여개), 기암괴석		
	바다낚시터	전국 연안		
기타	바다 갈라짐 등			
인문 자원	사회 문화 자원	전시관	어촌민속관(비중) 등	
		지역축제	각 연안지역 별 72개	
		바다음식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구어법	.	
	산업 자원	어촌사적지	해양문화지표 조사중	
		어 촌	4,000여개의 자연부락 어촌	
		어 항	지정 어항 415개소, 소규모어항 2,000여개소	
어 정	어 정	각 연안(지선)수산자원보호구역, 양식산란장, 회유로 등)		
	유어선	3,670여척		

*자료 : 필자작성

3. 어촌관광의 특성과 발전

1) 어촌관광의 고유한 특성

어촌관광의 특성으로서는 먼저 어민이 수행주체로

서 본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식 등 여러 가지 강점도 있는 반면에 전문 관광사업가들이 갖는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한계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민들이 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아무래도 소규모, 소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영세성이 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소규모 지역 여건을 잘 이용하여 적절히 운영이 될 경우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어촌관광개발 발전단계

소득의 증가와 도로의 개설, 자가용의 보급 등으로 도시민들의 왕래가 차츰 잦아지게 되는 어촌계들은 점진적으로 관광어촌화하게 된다. 관광어촌으로 변하면서 어촌 산업이나 어촌의 자원과 관련된 관광시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관광어촌들은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관광 수요가 높은 경인 연안과 강원 연안 등 수도권권, 부산권 등 대도시 인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제주도나 변산국립공원 등 일부 유명관광지 인근에서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개설예정인 지역, 서해안 등의 순수어촌들이 향후 관광어촌으로 많이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관광지 지정 등을 통하여 완전히 관광지로 변하여 원래 어촌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다수의 지역주민이 관광업이나 유통업으로 전업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순수어촌에서 관광지로 취락공간과 경제사회 구조가 크게 바뀐 지역들이다. 최근 정동진, 제주도 등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여 이미 관광어촌에서 순수 관광지로 변모하는 지역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때에는 해양관광 등 보다 고급화된 관광이 전체 지역을 주도하게 되고 어민들은 주도권을 상실하고 외부의 개발가들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단계가 바람직한가는 가치관의 문제이나 어촌이 가지는 고유성을 간직한 채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체제라고 볼 때 중간단계인 관광어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적 갈등이나 환경오염, 난개발, 기존 산업의 보호, 어민들의 주도권 행사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단계를 염두에 두고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표-2. 어촌의 관광지 발전 단계

모 델	어촌계	방 향
순수 수산어촌	대부분 어촌계	수산시설 보강 및 어촌관광화 대비 지원
관광어촌	일부 어촌계	어촌관광사업 집중지원
순수 관광지	제한된 지역	관광사업 인프라 보강 방안, 기타 민자

*자료 : 필자작성

앞에서 언급된 관광어촌을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의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 부문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1단계(기초 관광어촌마을)로는 기존의 순수어촌에서 관광 발전가능성은 높으나 아직은 관광사업이 본격화 되지 못한 마을로서 기초 관광인프라가 약하므로 이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어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단계(성장 관광어촌마을)로서 기초 인프라를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관광객을 집객하고 있으며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경우로서 인프라의 보완과 홍보, 관광프로그램 등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고산 등, 지역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지역들로서 아직 그 숫자는 많지 않다.

3단계(성숙 관광어촌마을)는 관광어촌으로서 완벽한 체험, 휴식, 숙박 등의 시설을 갖춘 마을로서 각종 관광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관광사업이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된 지역이다. 이러한 마을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진 관광어촌이라고 볼 수 있다.

4. 어촌관광의 유형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유형은 관광자원유형, 관광패턴, 공간유형, 지형적인 형상, 활동유형별 등 여러 가지

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어촌에서의 관광활동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보다 그룹화 시켜 큰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대부분 수산물의 시식과 관련되거나 수산물을 구입하는 활동(인천 월곶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이 하나 도출된다.

표-3. 어촌관광 유형별 내용

어촌유형	관광유형	체류시간	활성화시간	숙박시설관련	비고
수산물구매/시식형	먹거리형	당일형	년 중		어항관련
바다낚시형	놀거리형	당일~1박형	년 중	원거리인 경우 숙박필요	어항이용
해수욕형	놀거리형 (실거리)	2박이상	하 계	숙박필요	비치발달지역
생태체험형	볼거리형	반일형~1박형	년 중		갯벌, 칠새, 어장
해양스포츠형	즐길거리, 놀거리형	1~2박형	봄, 여름, 가을	숙박필요	해양스포츠 적지
어촌경관/휴양형	볼거리형	다양 특정시기, 년중		숙박필요	일출/일몰, 바다길라잡이 등
어촌역사문화형	볼거리형	당일~1박형	년중 및 특정시기	숙박필요	역사유적, 축제 등

*자료 : 필자작성

둘째로는 어업자원이 연안에 풍부하여 이를 통해 바다낚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갯바위가 발달한 지역이거나 도서 주변에 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많다.

셋째로는 해수욕장지역으로서 대개 비치가 발달하여 하계에 해수욕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다.

넷째로는 갯벌이 발달한 강화도 등 서해안 어촌들, 칠새들이 많이 찾아드는 지역들, 그리고 어장을 이용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촌 등으로 구성된 생태 관련 체험이 가능한 어촌들이다.

다섯째로는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어촌 지역들이다. 여섯째로는 바다 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 유형으로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일출/일몰은 최근 새로운 어촌관광자원으로 크게 부상하는 지역들이다.

일곱째로는 문화체험형으로서 어촌의 역사 사적, 각종 축제, 문화재 등이 소재가 되어 어촌관광이 활성화

되는 지역들이다.

5. 어촌관광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촌관광을 위한 지원을 보면 어촌의 관광기반이 잘 구비되지 못하여 이를 구축하기 위한 어촌휴양단지 조성, 어촌민속관, 해양수산과학관 등을 지원하여 지역 어촌 관광 테마 조성에 힘쓰고 있고 1999년부터는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하여 특성에 맞는 어촌의 육성에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식당, 숙박시설, 접근도로 개설 등을 지원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외에도 도·시·군 등의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4. 우리나라 어촌관광 관련사업별 현황

구 분	주 내 용	사 업 연 도
어촌관광개발사업	67개소에 61억여원 지원	1990~19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	한 권역에 35억원의 투자	1984년 이후 계속(70여개 권역 지원)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한 지역에 30억원의 투자	1987년 이후 2개소 지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선정사업	지원 중	2004년까지 40개소 지원중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11., pp. 27-31의 내용을 필자가 재정리함.

유형별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검토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어촌관광사업은 잠재력이 있는 기초 관광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성장 관광어촌마을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장 관광어촌마을의 경우는 어느 정도 관광 자립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이므로 약간의 사업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숙 관광어촌마을로 조성이 가능케 되므로 때로는 집중적인 지원에 의한 시범 관광어촌마을 조성에 의해 파급효과를 거양하려고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제대로 조성된 관광어촌마을을 육성하여 여타 마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지난 5월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개의 어촌·어항개발사

업 통합모형을 개발하는 등 현재 다각적인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다음과 같다.

-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중심으로의 전면적인 재편
-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수요 창출
- 어업인 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확산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 전환 유도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 내용은 체계적인 관광어촌 개발을 목적으로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3종의 통합 관광 모델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도별 종합평가를 통한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5. I·II·III 모델지역 현황

시·도	어촌어항복합공간(I 모델)	다기능어항(II 모델)	어촌관광단지(III 모델)
합 계	7개소(개소당 150억원)	6개소(개소당 500억원)	11개소(개소당 60억원)
부 산	-	기장군 기장을 대변함	강서구 거덕도(대항)
인 천	강화군 유정항	-	강화군 초지
울 산	북구 정자항	-	울주군 대송
경 기	-	-	화성시 전곡
강 원	강릉시 안동항	속초시 대포항	동해시 대진
충 남	-	서천군 서면 흥원항	보령시 무정포
전 북	-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군산시 아미도
전 남	강진군 마량항	여수시 국동항	신안군 방축
경 북	포항시 영포항	-	경주시 전촌
경 남	고성군 맥전포항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통영시 학림
재 주	남재주군 모슬포항	-	서귀포시 법환

*자료 : 필자작성

이들 지역은 2009년까지 개발될 지역들로서 이들 개발에 의한 각종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표 6>과 같다.

표-6. 어촌어항 관광 모델별 투자에 의한 총괄 파급효과와 추정 (단위:백만원, 명)

구 분	파 급 효 과				비 고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합계	
생산 파급효과	209,556	598,733	131,721	940,010	
고용 파급효과(명)	2,296	6,559	1,443	10,298	
소득 파급효과	44,866	128,207	28,206	201,279	
부가가치 파급효과	83,654	239,020	52,584	375,258	

6. 어촌관광 전망

현재 우리나라 어촌관광 참여 인구 비율은 전체 관광 인구의 약 24% 수준이며, 이를 고려하여 향후 참여 인구를 전망해 보면 2004년도에 8천6백여만명·회에서 2013년에는 1억6천8백만명·회로 추정된다.

표-7. 어촌관광 참여인구 전망

구분	1997	1999	2001	2004	2005	2008	2011	2013	증가율 (1997~13)	
국민관광	관광대상인구(만명)	35,837	36,352	37,563	37,938	39,088	40,272	41,482	42,242	
	1인당 참가횟수	7.0	5.1	6.05	5.87					
	1인당 참가일수	9.6	7.6	8.73	9.26	12.98	13.33	14.80	15.22	
	관광객(만명)	31,612	33,015	36,324	37,134					
어촌관광	관광총량(천만명·회)	344,176	272,087	327,929	358,942	381,555	458,337	550,499	622,047	6.3%
	1인당 참가일수			1.08회						
	어촌관광 참여율 (%A * 100%)			평균 24% 수준	25%	25	26	27	27	
	어촌관광 총량 (천만명·회)			78,667	86,146	95,369	119,160	146,635	167,953	8.4%
총시찰액 (십억원)			4,713	5,124	5,723	7,150	8,998	10,077		

7. 결론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발표 내용과 더불어 어촌 관광을 위해 선결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접객 시설들의 정비이다. 현재 앞에서 언급된 대로 어촌의 민박 등 숙박시설, 횃집 등 식당시설의 개선이 요구되고, 오페수 등 환경처리시설의 보강이 요망된다. 특히 어촌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진입로 등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설의 정비도 요망된다. 어선을 이용한 유어선도 기존 어선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상당히 선내가 비좁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거나 적어 요트형 등 편리한 시설로의 개선이 요망된다.

어촌에서의 각종 자원을 상품화하고 이를 시기별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어촌 체험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할 수 있으므로 각종 축제, 이벤트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생태체험활동, 문화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패키지화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홍보도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방문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어촌계 자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등 자체적인 어촌관광 정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어촌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PC 설치, 운영요원 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러한 관광사업 시행시 어촌의 특색을 살려야 하므로 각종 수산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바람직하다. 즉 정부의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100선 지원 사업, 연안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등 자원조성 사업, 어촌정보화 사업 등 각종 수산시책사업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설 개선 외에도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어업인들의 자체적인 교육과 조직화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생산 위주의 마인드와 접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어업인들로서는 사전적인 교육과 준비없이 관광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특히 이런 사업은 추진조직의 활성화와 핵심적인 리더가 중요하므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조성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업인들은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므로 교육을 통하여 서비스 정신 함양, 예절 교육 강화 등 접객능력 개발이 요구되며 아울러 마을별로 해설 가이드를 양성하여 자기 마을에 대한 역사문화 해설과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역 내 대학이나 협회 등 단체를 통하여 자문이나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지역은 횃집 단지 위주의 물개성적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 개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관광개발이 지역 문화 및 경관과 괴리되고 환경 용량을 초과하여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과도해지면 지역의 환경, 경관 그리고 전통문화 파괴의 역기능도 있으므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어촌과 수산업의 유지를 고려하여 어촌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특성화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개발이 요구된다. ▲